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방해 공작'을 퍼면서 탄핵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2·3·4·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여야 합의 우선'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면서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탄핵 발목 잡기' 비난 쇄도

쌍특검법 시간 끌기에 분노  
민주당, 오늘 대행 탄핵 투표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위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4명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위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시간 끌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지면서 '탄핵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정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재 심판대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돼 '헌재의 시간'은 시작될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충실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지만, 국회의 공석을 메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헌 6인 체제에서는 한 명이라도 인용을 반대하면 탄핵을 성사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에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위는 정지되며,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역민들의 공분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밝혀진 군 간부들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뒤집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간 끌기'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GGM

### 파업 투표에 준립 기로

#### 지역 합의 '물거품' 우려

광주지역 노동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의 합의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를 앞두고 향후 존립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2면>

GGM은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임금·근로여건을 노사상생협의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출범 당시 작성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GM 출범 3년여만인 지난 7월 일부 직원이 이를 어기고 노조를 결성해 단체협상에 나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조정 중지 결정 등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680여 명이 고용돼 있는 GGM은 매년 채용 과정에서 경쟁률이 20대1을 넘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노조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역 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GGM에 2300억원을 투자한 주주 36개 사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기반으로 설립했다"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단은 "GGM 설립과 운영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를 바탕으로 누적 생산 목표 35만 대 달성 시까지 노사 상생을 이어간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며 "최근 노사 협상 결렬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은 주주들에게 후회와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주단은 근로자와 경영진, 광주 시민사회, 광주시 등 노사민정에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주주단은 "GGM은 광주시민 세금 21%를 포함한 지역에서 65%의 투자가 이루어진 시민의 기업"이라며 "협정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가생산 물량 확보는 물론이고 20만 대 생산기지 구축도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조 파업 등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와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투자지분 회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내란 여파 민생경제 회복·미래 산업 지원 확대 최선"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송년 기자회견 "위기 극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각각 '더 단단한 민주주의·더 따뜻한 민생경제'와 '더 위대한 전라남도, The Great JeollaNamdo'를 내년도 사·도정 비전으로 내걸고, '12·3 비상계엄·탄핵' 여파 등으로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회권'을 열고 "2024년은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해'였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밤 광주시는 청사의 문을 열고 시민과 함께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로 광주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제 '오늘의 광주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낼 때'라면서 "5·18 정신 헌법전문수호 등에 광주가 또 앞장서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 시장은 "올해는 '광주의 힘'이 폭발한 해이기도 하다"면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광주FC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등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내년 시정과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3고에 더해 저성장 고착화,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탄핵 정국이라는 삼중 화환을 겪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방파제를 만들고 '문화'와 '성장'을 양손에 들고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올해 주요 성과로 '전남 국립대 설립'을 위한 목표·순천대 통합 및 국립의대 추진 합의를 이뤄낸 점, 화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5개 산업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등을 꼽았다.

그는 "새해에도 도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동행하는 글로벌 전남, '더 위대한 전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남인의 불굴의 잠재력과 결연한 도전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비상시국과 위기는 더 큰 기회와 희망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